

14. 제자도(道) 1: 섬김과 나눔 (막 8:31-9:1; 9:30-32; 10:32-45)

I. 제자도(discipleship)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 이는 한 마디로 섬김과 나눔이다. 사람을 섬긴다 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길이며, 또 나누다 함은 내게 있는 재능과 재물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충실함을 말한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삶,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삶을 뜻한다.

제자도(道), 제자의 길의 시작은 예수를 선생으로 고백하는데 있다. 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서들과는 다른 신학적 입장을 표명한다. 혹자는 소위 “메시아비밀”의 가설을 들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데, 이는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눈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는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그 안에서 종이 할 일이란 시킨 일/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삶, 발전적인 생각이 결여된다. 그러나 예수를 선생(先生)이라고 부를 때에는, 선생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다 나은, 진일보한 생각과 삶, 신학/신앙/삶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며(15:15),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14:12)한 말의 뜻은 예수를 선생으로 본 마가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기에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말로 신학다시하기이다.

성서가 우리에게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예수의 삶을 본받는다 함은 무엇일까? 먼저 그의 가르침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가리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신학)이 곧 나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지배자들이 본대로 예수가 사회 전복자(Crossan)이면 그는 위험인물로 제거 대상이다. 군중들이 본대로 예수가 사회의 하층계급과 어울려 다녔으면, 그는 술주정꾼이요 죄인들과 한 패다. 현대인들의 눈에 그가 옛 성인 중의 하나라면,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예수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보이고 가르쳤다면, 그는 내게 선생이요 그런 의미에서 주(ἡγετης, Master)가 된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함께 사는 생활, 곧 섬김과 나눔이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행 11:27; 26:28; 벧전 4:16)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직함(office)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왕으로 인침을 받은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는 혹은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말도 되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무계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기보다는 예수라는 인물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막 14:69-70), 그의 가르침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옳다.

다음에서는 제자도에 관한 두 개의 구절을 신학다시하기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9:1

- ◆ ¹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기까지는 결단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도¹ 있느니라 하시니라

¹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개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권능으로 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로되, 이를 맛보는 것/경험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뜻=> 가정법/가상법(ὡς ἂν ἰδωσιν). 결단코(οὐ μή)=>9:41 (9:1, 41; 10:15; 13:2*, 19, 30, 31; 14:25, 31; 16:18)

- ◆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개역); 죽기 전에...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having come, 새번역 개정)
- ◆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기까지는 결단코**(οὐ μὴ =>9:41, 결단코, 절대로, 반드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 ◆ “죽기 전에”=> 고난을 암시. 그러나 본문은 그런 고난조차도 경험하기 이전을 암시. 즉, 고난/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구원을 경험=> 그 구원/경험/신학이 고난/십자가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기까지는 결단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AWP). 우리말 역본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개역); “죽기 전에...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새번역 개정) 라고 이해한다.

여기서 결단코(οὐ μὴ)는 이중 부정의 용법으로 강조를 뜻한다 (οὐ μὴ =>9:41, 결단코, 절대로, 반드시). “죽기 전에”는 죽음 이전까지의 고난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οὐ μὴ γεύσονται θανάτου, shall not taste of death)함은 그런 고난조차도 경험하기 이전을 말한다. 즉, 고난/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구원을 경험한다. 그 구원/경험/신학이 고난/십자가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심지어는 십자가로 쓸 나무조차 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2) 10:45

- ◆ 45 인자의 온 것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공동번역);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 ◆ 본문해석의 콘텍스트=> 섬김의 도 (인자도, 인자 역시 이 대전제에 속함); “대속의 교리”가 3 번의 죽음예언이나, 다른 수난사에 포함되지 않았음에 주목.
- ◆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λύτρον ἀντὶ πολλῶν); 근데, 누구에게? 왜?
- ◆ 해석의 세 종류: ①무조건 믿는다; ②무시한다; ③그래도 마가복음의 일부인데...(내 삶에 어떤 영양가가 있나?=>신학다시하기)
 - 현실은 지배이데올로기/지배체제에 매여있다 (월터 윈크)
 - 벗어나는 길=>자신의 신학/삶 (더러운 영을 내보내고, 거룩한 영으로 채운다)
 -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복음(신학)” => 많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지배신학: 주먹, 사탕)를 대신하는 값/값(예수의 신학: 온정).
 - 주의할 점: “많은 사람을 대신해...죽었다/주었다(δοῦναι)”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한 값/값=> 목숨을 주는 것/섬김의 모습에 대한 부연설명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as a price in place of many”)=> “two-step progressions” (Rhoads, Dewey and Michie, Mark as Story, 49-51) e.g., “저물어, 해 질 때에”(1:32); “바깥, 한적한 곳”(1:45);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7:26);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12:44)
 - 섬김, 곧 목숨을 버림/헌신=>섬김의 신학을 살아냄. 이런 섬김의 삶이—신학다시하기의 표본

인자의 온 것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 개역이나 표준새번역은 “인자는” 혹은 “인자가 온 것은”이라 하여 예수의 신학을 예외적으로 구분했는데,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의 신학은 모델/모범/표준(ἀρχή)이라는 대전제를 따른다. 나는이 아니라, 나도/나 조차도이다. 예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 홀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권위에 따른 삶이다(=> 막 1:27, 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공동번역). 소위 “대속의 교리”로 볼 때, 이런 신학적 이해가 예수의 3 번에

걸친 죽음 예언과 후반기 수난사(14-15 장)에 포함되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곧 대속의 죽음이 마가복음의 핵심도 관심사도 아니었다는 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λύτρον ἀντὶ πολλῶν); 근데, 누구에게? 왜? 해석의 세 종류:

①무조건 믿는다; ②무시한다; ③그래도 마가복음의 일부인데...(내 삶에 어떤 영양가가 있나?=>신학다시하기)

현실은 지배이데올로기/지배체제에 매여있다. 지배문화/신학은 우리에게 현실 적응(부와 성공) 혹은 도피(경쟁포기, 미래로 투영된 성공의 삶)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삼의 길이 있으니, 곧 예수가 보여 준 상생의 삶이다. 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얻는 것이다. 지배체제의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신학을 세우고 살아내는 것이다 (정체성 형성=> 예수와 연관).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더러운 영을 내보내고, 거룩한 영으로 채운다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은 많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지배신학: 주먹, 사탕)를 전제하며 이를 대신하는 값/값(예수의 신학: 온정)이 있다는 말이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되(스스로의 삶/신학을 끝까지 살되) 이것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 곧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신했다는 말이다. 문법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한 값/값”은 목숨을 주는 것/섬김의 모습에 대한 부연설명이다(“to serve and to give his life—as a price/token in place of many”). 이는 마가복음 저자의 독특한 문체로 학자들은 “두 단계 진행”(two-step progressions)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저물어, 해 질 때에”(1:32); “바깥, 한적한 곳”(1:45);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7:26);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12:44) 등이 있다.

섬김의 신학, 곧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는 삶은 지배신학이 가르치거나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처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바이다. 예수의 이런 섬김의 삶이 신학다시하기의 표본이다.

REFLECTIONS: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1. 내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는? (8:34) => 가치판단이 아닌 정체성 문제
 - 고통=> 싫은데...
 - 소명(calling)=> self-esteem
2.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가?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답하라.)